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힘 받는다

정부, 전략산업 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 호남권 배정 추진

정부가 '전략산업분야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호남권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져 광주와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6개 광역경제권에 특화분야별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충청권·호남권·강원권·제주권에 각각 특화분야를 배정했으며 이중 신재생에

너지 분야는 호남권에 맡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전략산업분야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교과부와 (사)누리사업협의회(이사장 최정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해 채택된 사업으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광역경제권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사업단을 선정한다는 것 등을 제외하면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기존의 '누리사업'과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분야별로 10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기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과부는 올 연말까지 예산확보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끝내고 내년 4월에는 광역경제권별 거점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시도

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해 경북도 등에서도 신청했으나 자연 여건상 호남지역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호남에 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도 국회 보고에서 "광주·전남지역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최적지로 전국 태양광 발전량의 58%가 집중되고 있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공예엑스포 추진

차시장, 정부와 협의 중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중인 광주시가 '세계 공예엑스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8일 비즈니스룸에서 지역 국회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국비 지원요청 사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의 공예 선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공예엑스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광산읍과 함께 광주를 이끄는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광주시는 세계 공예엑스포 추진을 위한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용역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과 세계 공예엑스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시기, 행사 프로그램 등 엑스포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세계 공예엑스포가 개최될 경우 광주시가 아시아의 공예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나주·영암 등 AI 매물지역 지방 상수도 연내 설치

전남도는 나주·영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매물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됐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AI매물지의 상수도 사업비로 국비 65억원을 지원받아 나주에 16억원, 영암에 49억원을 긴급 투입해 이 지역에서는 이달 안에 상수도 설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AI 양성 발생지역 반경 3km 이내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나주시 금천·왕곡·반남면과 영암군 신북·시종면의 지방상수도 연결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닭, 오리 등 매물됐으나 매물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 올림픽 '된서리'

베이징 관광 상품 2~4배 올라 이용객 급감

항공 노선 잠정 중단... 26일 운항 재개할 듯

중국 베이징이 올림픽 개막과 함께 특수를 단단히 누리고 있으나 베이징행 노선을 갖춘 무안국제공항은 오히려 된서리를 맞고 있다.

올림픽으로 인해 중국 베이징의 숙박·음식비 등 관광비가 급등, 무안공항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베이징행 노선이 잠정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8일 무안국제공항에 따르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베이징을 오갔던 아시아

나항공편이 지난 1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

아시아나항공 베이징 노선은 인천공항까지 가지않고 중국으로 이동하려는 승객들이 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의 가격이 평소보다 2~4배 뛰어나 오면서 베이징행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항공편도 운항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실제 베이징 관광의 경우 2박3일짜리 프로그램이 평소 50~60만원이었으나 올림픽

으로 체류비가 크게 오르면서 100~200만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여행사들도 호텔 확보 자체가 힘들어 상품 개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국이 올림픽 때문에 보안과 통제를 강화,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한 것도 여행객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목표의 A관광사 관계자는 "베이징을 2박3일 다녀오는 데 100만원 이상을 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면서 "혹시나 했는데 올림픽 특수는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림픽이 끝난 26일부터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신안 에 멸종위기종 '가시연꽃' 있었네

섬지역에선 국내 첫 발견 학계 관심... 뜬뽕기도 서식

단 한 번도 물이 마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신안군 비금면 용소(龍沼)에서 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멸종 위기종인 가시연꽃(사진)이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신안군은 "비금초등학교 뒤편 용소 가장자리에서 역센 가시가 나고 다 자란 잎의

자름이 1m가 넘는 가시연꽃 수심 개체가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가시연꽃이 육지가 아닌 섬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가시연꽃은 전 세계에 1속 1종이 존재하는 동아시아 특산종으로 옛날에는 전국 각지의 저수지나 늪에 널리 분포했으나 최근에는 각종 개발로 점차 감소해 환경부 멸종위기종(II급 종)으로 지정된 희귀식물"이라며 "씨앗이나 뿌리로 이동하는 가시연꽃이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에서 발견된 것은 국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가시연꽃과 함께 용소에서는 천연기념물 뜬뽕기도 발견됐다.

어리 연꽃과 부레옥잠, 연꽃으로 가득한 용소는 비금의 넓은 농경지 용수원이며 물새들의 가장 좋은 휴식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안군은 가시연꽃과 뜬뽕기가 발견된 용소에 대해 생태조사와 함께 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안=조원환기자 wncho@kwangju.co.kr

시설

정부, 靑문화중심도시 조성 의지 보여라

새 정부들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는 6개월째 위원장 없이 표류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삭감되는 등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된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은 지난 2월 조영택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6개월째 공석이다.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해야 할 조성위는 이명박 정부들어 단 한 차례 회의도 갖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 정부의 의지가 퇴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화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콘텐츠(CT) 기술연구원 설립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기능 통합 및 재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취소했다. 관련 기관의 통폐합이 거론되면서 CT기술연구

원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민자 유치의 핵심인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문공부가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결성 지원 예산으로 올린 30억원을 1차 심의에서 삭감했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 장기 임대해 나선 경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시는 국책사업이다.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반이 흔들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마지못해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선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의지가 있다면 조성위원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사업 추진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중선체 유조선 조기 도입 검토해야

전남 서남해안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앞바다에서 벙커 A유 100ℓ가 발견돼 방제작업을 벌였다. 지난 2일에는 신안군 자은도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이 충돌하면서 벙커 C유 2천ℓ가 유출돼 관광 성수기를 맞은 해수욕장과 숙박업체 등이 피해를 입었다.

유출량이 많지 않아 다행이지만 기름 유출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기름 유출사고는 갯벌과 어장 오염 등 생태계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 방제작업을 벌여 기름띠나 찌꺼기를 제거해도 원래 생태계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급한 것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이다. 그런 면에서 유조선의 외벽을 두 겹으로 만든 이중선체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대형 기름 유출사고가 주로 유

조선과 선박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충분하다. 우리나라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로 기록된 태안 사고의 경우, 유조선이 이중선체로 돼 있었다면 유출량의 60%는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2010년부터 이중선체가 아닌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해 운항 금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조선과 가스선 등의 측면이 찢기면 원유와 가스 등 유독물질이 대량 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이중선체를 2012년 이후에나 도입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중선체 조기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름 유출사고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유조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기 바란다.

O157오염 해명 요구 목록부담

美 수입위생조건 위반 논란

미국 검역당국이 'O157'(E.Coli O157 : H7) 대장균 오염 작업장에 대한 우리측의 해명 요구에 20일 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수출작업장 조치에 대한 통보가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수입위생조건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우리 검역당국은 한국 수출작업장이 미국 O157 리콜 사태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름이상 뒤에야 미국에 상 황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8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

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O157 검출 작업장 관련 조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 6월 30일 미국 농업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 '네브래스카 비프사(社)'가 생산한 O157 감염 의심 쇠고기(분쇄육) 53만1천 707파운드(약 241t)를 리콜한다고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무려 17일이 지난 뒤의 대응이다.

7월 3일 리콜 물량을 530만파운드(약 2천400 t)로 10배 가량 늘린다고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도 13일이나 늦은 조치다. /연합뉴스

한나라,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대대적 수술

한나라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 총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수 민생법안과 향후 정책 방향의 골격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유가환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또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기

관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당내 몇몇 의원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0%이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90%, 내년이면 100%로 올라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세금은 가꾸로 오르는 역전 현상에 대해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정말 이래도 되는거냐?!

사망자·이민자에 면세유 부당 공급

농협 등 5년동안 120억원 상당... 전남서도 적발

농협이 사망자 통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미 사망한 농민과 주민등록탈소자 등을 대상으로 120억원에 달하는 면세유를 부당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유소가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뒤 확인서를 위조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9월 면세유 공급 및 관리, 감독기관 농협과 옛 농림부, 국제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공급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8명을 수사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3~2007년 면세유지급 농민현황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대조한 결과 사망자, 국외이

주자, 주민등록탈소자 등 1만5천10명에 대해 2만3천 450㎏ 상당의 면세유(공급금액 120억원200만원)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A(진도군·2002년 사망)씨의 친인척은 2만1천368ℓ에 달하는 면세유를 숨진 A씨 명의로 부당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망자 면세유 공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망자 명의로 처초가가 면세유를 받는 등 다른 사람이 받아간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며 "특히 공주시 한 농협직원은 2004~2006년 사망자 명의로 배정받아 남은 면세유 19만ℓ를 면세유 공급 대상자가 아닌 166명에게 부당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체육팀 2200-627	다자민 2200-536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사진부 2200-690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